

민간공원 1단계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가능

광주시, 검증용역 문제점 해명 못할 때…비현실적 기부채납규모·고도제한 위반 관건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우선협상자가 해명하지 못할 경우 그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달 말 시는 용역 결과 1단계 우선협상자 제안서의 보완 사항, 문제점 등을 정리해 우선협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1단계 4개 공원의 우선협상자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전문가 3명, 광주시 송무 담당 변호사, 공원녹지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시 협상단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역업체들은 지난 2일 1차 보고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제출했으며, 시 협상단은 보완 사

항, 문제점 등만 별도로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우선협상자에게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의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1단계 사업 타당성 검증 결과 우선협상자의 제안서 내용 중 기부채납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현실성이 없거나 최고 45층에 달하는 높이 등 공원과 어울리지 않는 경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위반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북·수랑공원 제안서의 ‘비행안전구역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광주 공군부대의 회신 결과를 받았지만, 추후 재협의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다. 비행안

전구역 고도제한 높이가 특정 위치마다 다르고 차폐이론의 적용에 따라 위반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증 결과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결할 수 없는 경우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위반 문제는 좀 더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송암공원-고운건설(주), 수랑공원-(주)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제일건설(주), 마북공원-호반베르디움(주) 등 4곳의 우선협상자의 최종 사업자 선정

여부는 다음달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무원, 전문가로만 구성된 우선협상단에 시민사회단체 대표 2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 일곡, 중외 등 광주의 대표공원이 포함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일정을 민선 7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 행정절차를 이유로 4월 공고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제안서 공고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까지 2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까지의 일단 제안서 공고를 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절대 권력’ 시진핑

국가주석·군사위 주석

만장일치 재선출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문을 연 시진핑 국가 주석이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되며 절대 권력을 과시했다.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5차 전체 회의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2970표)로 시 주석을 국가주석과 군사위 주석으로 다시 뽑았다. 이로써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재선출된데 이어 이날도 두 번째 국가주석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국가주석 임기 조항마저 삭제된 상황이라 시 주석은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중국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 주석을 독차지하며 명실공히 ‘삼위일체’를 통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시 주석은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당 총서기·당 중앙군사위 주석·국가주석에 오른 이후 반(반)부패 투쟁을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하면서 절대 권력 만달기에 주력해왔다.

이미 중국 헌법에 ‘시진핑 사상’이 삽입됐고 국가주석 3연임 이상 제한 규정은 삭제됐으며 이번 전인대를 통해 국가주석과 군사위 주석에 다시 오름에 따라 ‘시화제’ 시진핑의 집권 2기는 탄탄대로를 걷게 됐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국가주석과 부주석 등을 선출하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 5차 전체 회의가 열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헌법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개헌안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실현에 미흡

시민단체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재정권 보장해야”

지난 13일 청와대에 보고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의 정부 개헌안 초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발의할 정부 개헌안 최종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자문특위와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

심 쟁점에 대해 현재보다 진일보한 1안과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2안이 복수안으로 제시된 가운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안의 자치입법권은 1. 2안 모두 법률우위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2안은 지금 체계와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이다. 또 자치재정권과 관련, 지자체가 재정에 맞게 자율 과세하도록 ‘자치세’라는 명칭을 헌법에 담는 1안과 지방정부가 조례 형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하는 2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지방정부의 과세 권한을 강화하지만 2안은 종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청와대는 조세 법률주의를 손보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후자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각 지역에서는 자문특위가 낡은 수도권 중심주의의 논리에 경도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재울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은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혁신하자는 것인데, 초안은 지방분권 생색만 낸 모양새”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수차례 언급한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진료소, 몽골 초원 찾아간다

유목민 맞춤 이동식 진료소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상징하는 광주진료소가 몽골 초원을 찾아갔다. 16일 광주시 몽골 차랑 이동식 진료소가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광주시 관계자와 사업 추진단체인 최동석 광주국제협력단 이사장, 아흐마 몽골 울란바토르 부시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 3호 진료소는 뮐 몽골 광주진료소는 1, 2호 진료소인 캄보디아나 네덜란드처럼 특정 장소에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진료소다.

이동식 진료소는 유목민이 많은 몽골의 여건을 고려해 차량에 치고 장비를 싣고 초원을 찾아가며 치료를 하게 된다. 진료 과목도 치과 치료가 여의치 않은 현지 유목민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동식 진료소는 몽골 현지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광주 의료봉사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몽골을 찾아 현지 의료진과 함께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개소식에 맞춰 몽골을 찾은 의료봉사단은 울란바토르 외곽 빈민촌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광주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나눔과 연대, 인권의 광주정신 실천 방안 중 하나로 아시아권 광주진료소 개소를 추진했다.

제1호 광주진료소는 2014년 6월 캄보디아 캄퐁스퐁주에 열렸으며 현지 의료진이 하루 평균 3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제2호 진료소는 지난해 2월 네덜란드 바트렌 디무와 마을에 문을 열었다. 2015년 네덜란드 개광주의 민간 의료진과 119구조대가 파견돼 구조활동을 펼친 것이 인연이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진료소는 의료 여건이 열악한 아시아 주변국 주민들에게 광주의 나눔과 연대, 사랑과 봉사 등 이른바 광주정신을 알리고 시민에게도 자부심을 주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우리나라의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최근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4세기)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 방식에서 기원했다.

한반도 전역에서 기원전 3세기~1세기 것으로 보이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발견된 만큼 온돌문화는 2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온돌(사진)은 서양 벽난로와 달리 연기를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놓혀 기어가게 만들어 불 윗부분을 깔고 앉는 바닥 난방이 특징이다.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화재청은 “온돌을 바탕으로 한 생



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은 물론,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며 ““온돌방”은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더불어 겨울철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로 오늘날까지도 대중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온돌문화가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했다는 점에서,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국·임야

바로 삽니다, 오천개발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상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 판선 · 전원주택지

- 구례군 토지면 문수골 3683㎡ 투자성 높은 1억3천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광주서 30분 내 6천만원
- 원도 약산면 특림리 바디집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 주택 · 원룸 · 아파트

- 장성 심계면 사창리 대지 366㎡ 주택있음 3200만원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고 1억4500
- 월산동 2층 상가주택 땅 106㎡ 건평 117㎡ 집 2억500
-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 투자 · 매도 · 교환

- 양동시장건너 재개발지역 대로변 대지 217㎡ 주택 3억2천
- 영암읍 역리 대로점 준공임지 1702㎡ 급매 2억2천
- 장성 북이면 수성리 전 2136㎡ 전원생활적합 4500만원
- 순창군 북흥면 산 330248㎡(추월산) 3억4천
-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산 61492㎡ 귀촌생활용 3억
- 금남로5가 대로변 북동상업지 2010㎡ 병일 오피스텔등 적합 52억
- 무안군 운남면 내리 전원주택 등 적합 5000㎡ 1억9천
-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전 1663㎡ 도로점 1억3천
- 화순 동면 장동리 땅 213평 건평 60 은행 1억5천 매도·교환 2억5천
- 제주도 서귀포시 발장 땅110여평 건물3층 65평형 엘리베이터 10억2천
- 월산동 우진중부근 원룸적합 379㎡ 소방도 점 4억천
- 충장로 5가 도로점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 상가건물

- 순천만 판선 대대로 땅 332㎡ 건평 285㎡ 방 8년매출 1억선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충장로5가 바스도로 대지 265㎡ 건평 1001㎡ 10억5천
- 양동 모텔·카페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좋은 12억
- 월산동 바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태성공인중개사

▶ 상가 / 상가주택

- 수원동 7층 건물(보증금 6억 월3,200만) 매 75억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 24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 양산동 원룸 대 300㎡ 매 7억8천(보1억, 월4백만, 안집)
- 오선동(진국산단) 대 785㎡ 건 600㎡ 매 21억(보2억, 월900만)
- 담양군 수북리 전원주택 대 506㎡ 건 96㎡ 매 3억5천

▶ 토 지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서구 매월동 대로변 자연녹지 3,600㎡ 매 38억(전시장 물류 사옥 적합)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1,250㎡ 매 20억(카센터, 물류 적합)
- 서구 서창동 대지, 전 1,760㎡ 매 13억5천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자리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운남동 대로변 자연녹지 2,100㎡ 매 32억(전시장 사옥적합)
- 남평읍 상곡리 전,임야 9,240㎡ 매 8억4천(전원주택부지 적합)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나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진원면 선적리 재1종주거 대지 830㎡ 매2억6천
-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1종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정음시 산정동 전 3,300㎡ 매 4억5천만원(전원주택, 가든식당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십2만원 (토목공사원료, 바닷가토지, 남동향, 편선, 카라반, 전원주택, 태양광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점포임대 - 구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지리산 온천 정문 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55평),

편의점(55평), 지하 - 노래방(85평)

■ 호텔건물 내 있음, 비품권리금없음

모든점포 분할임대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입주가능

■ 문의. 010-3605-5000